

# “윤희숙 부친 땅투기 의혹 철저 조사를”

### 민주 “투기 귀재·내로남불” KDI 임직원 전수조사해야 양의원영 “사퇴쇼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이 전남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데 대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윤 의원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 씌워 대대적 반격 모드를 가동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을 투기 귀재라고 했으나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깜짝 사퇴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을 게 아니라 부친의

토지매입 과정, 내부정보 제공 여부, 자금 조성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회의에서 “윤 의원은 부친 땅 구매 과정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주자들도 윤 의원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사퇴는 본인 의지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며, 다만 사퇴와 별개로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썼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땅 산 것은 아버지인데 왜 여당에 화내고, 조사를 의뢰한 곳은 야당 지도부인데 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뭐라고 하는가”라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거나 나는 억울하다는 프레임을 끌고 오거나 하는 것은 부질없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 공모해 투기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은 가질 수밖에 없다”며 “KDI는 국가 주요 정책을 다 용역을 맡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 조사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의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이 ‘투기의 귀재’가 아닌지 입증하라”며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수본에 계좌 내역을 다 내고 부친 농지 구매의 연관성을 조사받아야 한다. 혹시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사퇴소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는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려려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쇼는 그만하고 성실히 수사부터 받아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 부동산 매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준석, 부동산 탈당요구 6명에 “선당후사 정신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6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돼 제명 또는 탈당 요구 조치를 받은 6명에 대해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 결정 등 어려운 결정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의 조치에 대해 다소간에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한다”면서도 “가장 중요

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강기운·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윤미향 공동 발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이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을 둘러싼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연합뉴스

## ‘대선 출마’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오늘 순천·광양 방문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순천·광양을 찾는다.

26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7일 오후 순천의 청년창업공간과 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1인시위 현장을 찾는다. 순천 저전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청년창업공간을 방문해 지역소멸 위기 속에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을 만나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나 정규직 전환과 공동복지금의 차별 철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헌법과 법률 바깥에 680만의 배제된 노동, 새로운 노동 시민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라며 “이 상황에 노동법 몇 개를 뜯어고치고, 몇 개의 근로 기준을 붙여넣는다고 다음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호남과 동행 않고는 국민통합 이야기 못해”

###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광주 방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6일 “국내 역사와 현재 현안을 비롯한 정치, 경제에서 호남과 동행하며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호남에 구애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원 전 지사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로 대표되는 국가 폭력에 대한 역사적 잘못에 대해 철저히 끝없는 반성 위에서 호남의 발전과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을 높이 빛내고 명예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성장 주도적 경제세력으로 자리잡도록 국가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정치 배제와 경제 소외를 뛰어넘어 호남이 대한민국 주도세력으로서 동행해야 한다”고 ‘호남 동행론’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운영에 호남 인재를 정당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과거에 지역과 정치적인 이유로 (호남을) 배제한 배제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이준석 당 대표와 경선 관리 문제를 두고 충돌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고 선관위가 결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공정 경선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 있다”면서 “할 일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한다면 충돌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편저편 가르치지 않고 법적인 정의를 강단 있게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준비된 능력이 있는지, 여야 무제한으로 네거티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방전을 할텐데 검증은 통과할 것인가”라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전 지사는 끝으로 “제주출신으로, 80년 5·18을 계기로 학생 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정신은 항상 몸에 배어 있고, 30대와 40대에는 보수정당의 개혁혁신 아이콘으로서 제주지사로 5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철저한 검증도 받았다”면서 “차별과 배제없이 국민통합에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호남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1박 2일 간 광주에서 상인,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는 민생 투어를 펼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용감한 개혁으로 성장 경제 만들겠다”

### 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을 주제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전 의원은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며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이라며 “유승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피스텔, 신축부지

##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515㎡(구 156형)      대지 582㎡(구 176형)
- 지하 1층, 지상 9층      지하 1층, 지상 10층
- 46㎡(구 14형), 64호실      49㎡(구 15형), 72호실
- 매매 - 18억5천만원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